

## 쉬우면서도 통찰력 있는 책이 그리워지는 까닭

요한 갈통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읽고

김영명 | 한림대 정외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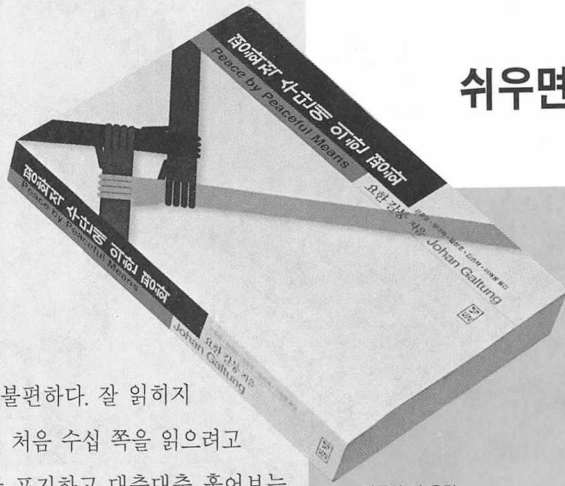
나는 이 책이 불편하다. 잘 읽히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 수십 쪽을 읽으려고 노력하다 결국 포기하고 대충대충 훑어보는 걸로 만족했다. 아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 책이 읽히지 않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책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읽을 수 없는 경우다. 이 책의 내용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책이 읽히지 않는 두번째 이유는 책의 내용을 수긍할 수 없을 때다. 그런데 이 책에는 별로 반대할 만한 '거리'가 없다. 그러니 이것도 내가 이 책을 불편해 하는 까닭이 아니다. 또 다른 이유는 책의 서술 방식이나 문체가 기질에 맞지 않아서 읽을 수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정독할 수 없는 까닭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다.

### 평화에 대한 복유립권 시각 대변해

요한 갈통은 국제정치학자라면 다 아는 저명한 평화학자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평화연구소를 창설했다니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임에 틀림없다. 나는 70년대 말 대학원 시절에 그의 '구조적 폭력과 평화'에 관한 글을 읽고 느낀 바가 있어 미국 유학을 위한 장학금 지원서에 바로 이 문제를 연구하겠다고 적었던 기억이 난다. 그가 눈에 띄는 또 다른 이유는 영미권 이론가들이 주도하는 국제정치학계에서 복구 사람으로서 그곳의 국제 갈등과 평화관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로 보지 않고 경제적 폭력, 문화적 폭력의 배제와 인간다운 삶의 추구로 확대하는 그의 시각은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평가가



강종일 외 옮김  
들녘/A5신/584면/18,000원

떠오르지 않는다. 평화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이 책에 이르면 평화가 '개발' '갈등' '문명'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도깨비 보따리'처럼 돼 있다. 이쯤 되면 평화가 인류의 다른 가치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다. 이 책에 왜 굳이 '평화'라는 제목을 붙여야 하는지도 의문이 간다. 평화가 아니라 개발, 갈등, 문명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골라 제목을 붙여도 비슷하게 그럴 듯하고 비슷하게 부족할 듯하다.

### 현학취미는 거슬러

갈통은 나이가 들수록 철학자가 되고 싶은 모양이다. 이 책은 국제정치학의 기술적인 용어와 더불어 철학적 서술들이 많이 등장한다. 불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온다. 역시 젊은 시절엔 기술적인 전문 용어들을 좋아하고 철학의 심오한 말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게 되는가 보다. 이 점은 조금도 나쁠 게 없다. 나 자신이 기술적 용어들을 싫어한다. 그러나 신비화의 의도가 드러나는 '심오한' 말들의 잔치에는 거부감을 느낀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 현상들은 거의 없다. 학자들의 현학적 취미와 허영심이 지식과 지혜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의 문체가 지나치게 현학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이 책 속에 가득 차 있다.

요한 갈통은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로 보지 않고 경제적 폭력, 문화적 폭력의 배제와 인간다운 삶의 추구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책에 제시된 '평화'는 너무 광범하다. '개발' '갈등' '문명'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도깨비 보따리' 같다. 하지만 자르고 쪼개고 분석하는 그의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저서다.

그것은 아마도 그 자신의 자질과 의도가 책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의 천재적인 자질은 자르고 쪼개고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책에도 그런 그의 특기가 여지없이 발휘되고 있다. 평화, 갈등, 개발, 문명을 각각 다른 장들에서 이것들은 여지없이 잘리고 부서지고 분석된다. 그러나 그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잘리고 깨뜨려진 조각들이 다시 한번 어우러져 종합적인 평화학으로 탄생했는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더구나 그의 특기가 아닌 철학적 통찰을 시도함으로써 그의 작업은 오히려 훼손되고 만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요한 갈통이 천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재적'인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의 60권 이상(!)에 달하는 저서 가운데 진정 중요한 대작이 없음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60권이나 썼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닐까?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는 그보다 훨씬 유명하지만, 저서의 수는 아마 갈통의 10분의 1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인문계열 대학 졸업자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들만 썼다. 대중 영합이란 이야기가 아니다. 쉽게 읽히면서 통찰력이 빛나는 책. 그런 책의 향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물론 헌팅턴의 책들을 내가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찬성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